

벤츠가 그리는 새로운 미래... 격이 다른 친환경 클래스



Mercedes-Benz

'비전 EQS' 콘셉트카 소개

전륜·후륜 전기모터 별도로 장착
최고속력 469마력·최대토크 77.5kg
알루미늄·탄소섬유 등 소재 진일보

메르세데스-벤츠는 자동차 100년 역사를 이끈 주인공이다. 창업자 칼 벤츠가 1885년 처음 가솔린 엔진을 개발한 이후 에어백과 ABS 등 기술을 새로 개발하는 등 업계 표준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EQ는 앞으로 100년을 이끌기 위해 벤츠가 새로 만든 친환경 브랜드다. 벤츠뿐 아니라 서브브랜드인 AMG와 마이하흐까지도 EQ에 통합한다는 계획을 세울 만큼 벤츠가 주력하는 미래 전략이다.

비전 EQS는 EQ 브랜드의 실체를 짐작케 해주는 콘셉트카다. 벤츠의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해 S클래스부터 소형 모델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소개 중이다. 양산형 모델은 2021년 독일에서 처음 공개를 준비 중이다.



비전 EQS.

파워트레인이 단연 가장 큰 특징이다. 전륜과 후륜에 전기모터를 각각 따로 장착한다. 가변 토크 분배가 가능한 전자식 사륜 구동으로 최고출력 469마력에 최대토크 77.5kg·m을 발휘하도록 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제로백)은 불과 4초대다.

배터리 시스템 역시 완전히 달라진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답게 차체 바닥에 배터리를 깔았다. 차체 무게 중심을 낮추고 배터리 용량도 극대화할 수 있다. 다임러그룹의 도이치어큐모티브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채택한다.

소재도 진일보했다. 강철과 알루미늄, 탄소섬유를 통해 더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어졌다. 재활용 소재를 활용해 비용 절감과 친환경성까지 극대화했

다. 배터리 생산 기지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포부다.

자율주행 기술은 우선 3단계로 탑재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등 장거리 주행을 스스로 해주는 수준이다. 단 센서 부분을 모듈식으로 만들어 추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다.

아울러 EQS는 쿠페 스타일 측면 라인과 디지털 헤드램프와 LED 매트릭스 그릴을 활용해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갖췄다. 내부 인테리어는 최고급 요트에서 영감을 얻어 '진보적인 럭셔리'라는 디자인 철학을 완성해냈다.

벤츠가 보여주는 미래는 단지 EQS에만 있지는 않았다. EQS가 전시된



벤츠 고양 전시장 AMG 부문.

/메르세데스-벤츠

경기도 고양 전시장은 벤츠의 새로운 소비자 공략 계획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고양 전시장은 단지 차량을 판매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 고객들에게 브랜드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무게를 실었다. 이를 위해 차량을 빼곡히 배치하기보다는 공간 한편에 아스팔트 부분에만 할당했으며, 심지어 곳곳에 조성해뒀다.

전시장은 서브 브랜드별로 구분됐는데, 그 중심인 EQ 브랜드를 전시하는 공간은 모터쇼를 모티브로 꾸몄다. 복층구조로 설계하고 브랜드 가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AMG관에는 경기용 트랙을 형상화하고, 마이하흐를 전시하는 익스클루시브 라운지에는 최고

급 인테리어로 꾸며놓는 등 차별점도 뒀다.

각 공간별로는 대형 미디어월을 설치하고 태블릿과 연결해 다양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보여준다. 차량 구매 고객은 이를 통해 여러 모델과 색깔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출고장도 특별함을 더했다.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정하거나, 선물하는 경우 관련 영상을 틀어주기도 한다. 차량에 리본을 묶어주는 등 부대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비 센터는 맞춤형 '마이 서비스'로 요약된다. 정비 종류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지정해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김재우 기자 juk@metroseoul.co.kr

인간중심... 감성품질... 최고 편의사양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S레인지' 성장세



S90 등 S레인지 세단 수요 급증
4월 판매 실적 전년비 23% 성장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볼보 차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도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과거 XC40, XC60, XC90 등 XC레인지가 이끌었지만 최근에는 볼보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인 S90과 중형 프리미엄 세단 S60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이어 지난해 완전변경(풀체인지)을 거친 S60은 물론, 2016년 처음 선보인 2세대 S90 등 세단 모델의 판매량이 증가하며 다시 주목 받고 있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볼보자동차코리아가 4월 판매 실적에서 전년 대비 23% 성장한 1128대를 판매고를 기록하는 등 월 1000대 이상 판매를 다시 한번 갱신했다. 특히 올 1~4월 누적판매 집계에서도 총 4318대 판매 등 전년 대비 26% 성장한 수치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대세감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볼보의 인기는 S90과 S60의



볼보자동차 S60 T5 INS 주행모습.

수요 확대에 있다. S90을 비롯해 S레인지 세단의 1~4월 누적 판매량은 작년 대비 896대가 증가한 1362대를 기록, 192%나 성장하며 다른 차종에 비해 눈에 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SUV 중심의 판매를 넘어 S레인지와 같은 다양한 모델이 서로 판매를 견인하는 구조로 한번 더 재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볼보 S레인지는 역동적인 주행 퍼포먼스와 뛰어난 감성품질, 인체 공학적 인테리어, 최고급 안전 편의사양 기본 제공 등을 바탕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내 세단 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스웨디시 플래그십 세단인 S90을 비롯해 볼보자동차코리아 세단 라인업을 구성하는 S레인지(S60, S90)는 스웨디시 럭셔리 디자인, 동급 경쟁 모델

대비 최고의 편의 및 안전사양에 5년 또는 10만km의 최장 보증기간 등 뛰어난 상품성을 갖췄다"며 "세단 구매를 고려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매력적인 선택지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인기는 드라이브-E 파워트레인을 통해 S레인지에서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주행 퍼포먼스도 한몫하고 있다.

볼보 S레인지에 탑재된 직렬4기통 터보차저 T5 드라이브-E 엔진은 최고출력 254/5500(ps/rpm), 최대토크 35.7/1500-4800(kg·m/rpm)을 자랑하며 8단 자동 기어트로닉 변속기와 조화를 통해 세련된 주행 감각을 자랑한다.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모듈형 설계로 작고 가벼운 점이 특징이며, 2.0L 4기통

구조로 가변식 밸브 시스템, 연소제어 시스템, 내부 마찰을 통해 출력 손실을 줄여주는 기술 등 다양한 고도화된 엔진 기술이 적용되었다.

사용자 중심의 혁신 기술과 최고급 편의사양을 통한 고급스러움과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도 매력적이다.

볼보의 '인간 중심' 철학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S레인지 인테리어는 아이코닉한 패밀리룩과 새로운 디테일이 더해져 시각적인 것은 물론, 기능적으로도 운전의 재미에 최적화되어 있다. 여기에 전 트림에 제공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HUD)를 비롯해 12.3인치 디지털 디스플레이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 스마트폰 세대에 최적화된 9인치 터치스크린 방식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센서스는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한다.

인간의 경주 행상을 고려해 디자인된 시트는 훌륭한 착좌감을 제공하고, 최고급 가죽인 나파로 시트 마감처리를 하여 가죽 본연의 부드러움과 자연스러운 울림을 극대화해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 없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한다.

한편 볼보는 수입차 업계 최장의 보증기간을 제공한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국내 수입차 업계 최고 수준인 5년 또는 10만km의 보증 서비스 혜택을 제공을 통해 국내 세단 구매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마곡 LG CNS 본사 지하식당에서 직원이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페로 식사를 결제하는 모습.

/LG CNS

LG CNS

클라우드 중심 호실적 달성

LG CNS가 코로나19 영향 속에서도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LG CNS는 올해 1분기 매출액 6368억원, 영업이익 244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7%, 영업이익은 5.6%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은 분기 사상 최대다.

LG CNS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위기 상황에서도 클라우드 중심으로 IT 신기술 사업이 호실적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LG CNS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비대면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방침이다.

LG CNS는 사용자가 단말기에 얼굴을 비추면 얼굴인식·정보 조회·신분 파악·출입 게이트 개방 여부를 0.3초만에 파악하는 'AI 얼굴인식 출입통제 시스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클라우드를 결합한 '얼굴인식 결제 서비스' 등을 올해 새로 선보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